

오피니언

다산포럼

남영신



나는 올해도 우리가 건성으로 한글날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한글이 세계 최고 글자라는 자랑을 되뇌면서 스스로 도취되어 이 날을 보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올해 한글날이 예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광화문 광장에 세종의 동상을 앉히고, 그림에 '세종 이야기'라는 공간을 만들어 세종과 한글에 관한 볼거리를 만들었다는 점과 한글박물관을 짓자는 논의가 민간과 정부 양측에서 나온 것도 하나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올해 우리가 한글날을 건성으로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1446년)를 기념하는 날인지 모르고 한 말이다. 한글날을 제정하여 기념한 것이 무려 80년 가까이 되었는데 언론과 국민은 한글날을 표현하는 방법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10월 9일에 기념한 한글날은 훈민정음 발표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세계적인 언어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문화의 꽃이다."라는 논평을 냈다. 어떻게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인가? 또 한글과 우리말을 구별하지 못한 사실 한 구절을 소개한다. "한글의 우수성은 외국인들도 인정하는 바다. (중략) 그럼에도 정작 모국에서는 한글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한 젊은 세대들은 생경하고 저급한 신조어를 남발하고 있어 한글 파괴가 위험 수준에 달한 지 오래다.(매일경제 사설, 한글날 부끄럽게 하는 한글 파괴)" 젊은 세대들이 생경하고 저급한 신조어를 남발하는 것이 어떻게 '한글 파괴'

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써 오던 글자라면 우리는 한글의 어떤 점을 자랑하게 될까. 만일 한글의 제자 원리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내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과학적이고 훌륭한 글자를 가진 한국인이 글자 생활을 하는 데 몹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92%가 맞춤법을 제대로 몰라서 한글을 정확하게 쓰기 어렵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한글이 가장 우수한 글자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한글로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애써 눈감고 정부나 학자들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한글날을 건성으로 기념하고 지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지금처럼 해마다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정작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한글의 기능에 대한 불만이 차츰 쌓여서 한글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영로 알파벳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발 건성으로 한글날을 지내지 말고 한글의 우수성을 더욱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소중한 날로 활용하게 되기 바란다.

<국어문화운동본부 이사장 > <다산연구소 제6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성으로 보낸 한글날

다. 훈민정음 반포 8회갑(480년)이 되는 1926년에 훈민정음 발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갸날'을 정한 것이 오늘날의 한글날의 효시이므로 이때부터 시작한다면 올해는 83돌 한글날이 되는 셈이다(중간에 8년 동안 기념식을 열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을 빼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아는 일부 매체는 '훈민정음 반포 제 563돌, 한글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냥 '2009년 한글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둘째로, 많은 언론과 국민이 '한글'과 우리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한글날을 기념했다. 민주노동당은 한글날에 "겨레의 일과 민중의 날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한글은

가 된다'는 말인지.

한글날만 되면 신문과 방송이 외국어, 비속어, 외제어 등의 남용을 고발하는데 이들이 대체로 한글과 우리말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한글날을 기념하기 전에 한글과 우리말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건성 한글날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셋째로, 한글날이면 으레 한글 예찬을 침이 마르도록 해 왔다. 외국인의 입을 빌려서도 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한글 예찬으로 신이 난다. 물론 우리는 한글에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에 알리든지 자랑해도 된다. 그러나 언제나 자랑에 그치고 마는 것이 불만이다. 만일 한글이 세종의 창작품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오래전

시설

신종플루 '대유행 조짐' 비상조치 강구해야

신종플루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 어제 하루 동안 학생 3명을 비롯해 5명이 신종플루로 사망했고 확진 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4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감염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신종플루 대유행 조짐은 세계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은 사망자가 1천명을 넘어서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의료 및 방역 종사자와 초·중·고생, 노약자 등을 중심으로 1천716만명에게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그러나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 힘들다. 노약자들은 예방주사를 기다리는 동안 언제 어느 때라도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 말 이후 예방접종이 가능한 일반인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초·중·고생들의 감염을 어느 정도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68만여 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

는 11월에 신종플루가 가장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종플루로 수능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학교의 일제 휴교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환자 발생 시 조기 휴교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당국은 수업 시수와 시험 등을 이유로 내색을 표하고 있다. 휴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지나친 공포감은 경계해야 하나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다.

정부와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 체제도 점검해야 한다. 아직도 일선 병원에서 신종 플루 환자를 기피하거나 제대로 된 격리병동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다. 처음 생산된 예방백신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역시 머뭇거리기 이유가 없다. 지금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신종플루 확산 방지와 피해 예방에 쏟아부어야 할 때다.

'깜짝' 성장률에 낙관할 때 아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9%로 7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예측한 0.5%와 비교할 때 놀랄만한 성적이다. 4분기 GDP가 전분기 수준만 유지하면 연간 성장률도 플러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성장률만 볼 때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성장률 속도와 괴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고용상황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더구나 유가, 원화 가치가 시장금리가 오르는 3고(高) 현상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서프라이즈' 성장률에 마음을 놓을 때가 결코 아닌 것이다.

사실 3분기 성장률 속내를 뜯어보면 착시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재고 감소 폭 둔화가 대표적인 경우다. 내수가 크게 성장했다기보다는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덕분이라는 얘기다. 또 추석 연휴가 10월로 옮겨져 3분기 조업일수가 늘

어난 것도 한 몫 했다. 소비가 다소 늘었다지만 승용차 세계 지원 등 정부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수출에 있어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본 것도 사실이다. 이는 모두 일시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환율을 비롯해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가 적지 않다.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배럴당 80달러선을 뚫고 있고 시장금리도 상승추세에 있다. 연말 체감경기는 성장률 속도와 괴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고용상황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더구나 유가, 원화 가치가 시장금리가 오르는 3고(高) 현상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서프라이즈' 성장률에 마음을 놓을 때가 결코 아닌 것이다.

이같이 불투명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깜짝' 성장이 자칫 장밋빛 기대감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교한 정책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無等鼓

십 수년 전 광주 금남로의 은행일이 노랗게 물들어갈 때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가을만 되면 '전설'을 만들어 호남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물했던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의 개신 행렬을 지켜보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지난 1982년 출범부터 호화 멤버를 자랑했던 해태 타이거즈는 1983년 시즌을 앞두고 지난 1997년까지 모두 아홉 차례 정상에 오르며 한국 프로야구 최고 명문구단으로 발돋움했다.

해태의 우승은 시민의 잔치로 이어졌다. 한국시리즈가 끝난 후에는 '광주 시민의 날'이 돌아와 해태가 개신한 금남로에서 화려한 카 퍼레이드를 벌이며 누구랄 것 없이 우승의 희열을 만끽했다.

그러나 1997년 아홉 번째 우승 이후 흥겨움은 끊어졌다. 타이거즈 모기업 해태의 경영부진으로 KIA가 야구단을 인수한 후에도 꾸준하게 정상에 도전했지만 승천보는 들려오지 않았다.

'80년 광주'의 생채기를 지닌 호남인들의 가슴을 해태가 우승으로 달래주었듯이 KIA가 열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새로운 긍지를 심어줄기 기대했지만 10년이 넘도록 돌아오는 것은 답답증뿐이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낭보가 마침내 터졌다. 나지완이 지난 24일 벌어진 200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7차전 9회 말 원아웃에서 통렬한 홈런 한방으로 승인을 시원하게 풀어 주었다. 더불어 KIA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금남로 카 퍼레이드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V10을 이룬 터여서 축제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비록 프로야구 경기가 전장판은 아니지만 퍼레이드는 '승자'의 것이다. 시민 모두가 금남로에 나와 카 퍼레이드의 행렬을 지켜보며 승리감에 취할 수 있도록 해준 KIA타이거즈. 그래서 2009년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잊을 수 없는 선물이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카 퍼레이드



NGO 칼럼

최은순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젊은 남편은 부모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부모로서 내 자식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남 앞에서 자랑스러울 자식으로 키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얻는 또 하나의 이름은 학부모다. 부모라 했을 때는 가정과 내 자식에 한정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면, 학부모는 내 자식만이 아닌 우리의 자식, 즉 내 아이와 함께 학교에 다니는 우

학부모회는 명칭 그대로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모든 부모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각 학교의 경우 학부모회라기보다는 임원 임마를 중심으로 모임이 꾸려지면서 내 아이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내 자식만을 위한 학교참여보다는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해서 학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가 자라나는 도서관을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어떻게 책을 구입하는지,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부모로 살아가기

리 아이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는 즉 사회적과 공동체 성격이 강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관심 갖는 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 형식적이 아닌 아이들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아낼 업체를 선택하고는 있는지, 텃을 내기 시작한 중학생인 내 아이가 유명 브랜드 교복을 사달라고 했을 때 왜 교복을 공동구매해서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판단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내가 학교에 대해 무작정 겁내고 포기해 버렸던 학부모였다면, 학교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도 모른 채 무턱대고 돈을 건어 학교를 위한 하면서 나서는 학부모였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숨 쉬는 학교와 사회를 부모의 이기심으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에게는 조금 부족한 부모이지만 학교에서는 조금 드센 학부모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교육의 짝'이 되지 않을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청주대 '헌책오피마켓' 타 대학도 활용했으면

요즘 대학생들 책값으로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 보면 원서는 물론이고 일반 교과목 전공 서적에 중고도서까지 책값이 좀 비싼 게 아니다. 아이들도 가끔씩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려고 노력하지만 필요한 책이 다 있는 것도 아니니 책을 사야만 한다.

학생들에게 되팔고 있었다. 재학생들은 응돈도 생기고 신입생들은 짬뽕에 사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였다. 또한 공부하면서 판매되는 책이 없으면 아쉬운 학생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로 여겼다.

이런 '헌책오피마켓' 방식을 각 대학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은 판매의 따스한 향기를 느끼며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권혁조·광주시 동구 내남동

기고

문인



광주는 빛의 고을이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남, 남도의 문화를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호남을 말할 때 그 중심은 남도(南道)요, 남도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예향(藝鄕), 의향(義鄕), 미향(味鄕)이라고 일컫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남은 풍족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역대 조정에 재정(財政)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컸으며,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배경으로 독특한 문화를 이뤄왔던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지역산업 생산과 직결되는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광주발전의 동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르신들과 서민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 6월에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개원했고 노인의료 서비스 복합단지와 북부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슈퍼, 음식점 등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광주천과 영산강 살리기, 도심속 생태 숲 조성을 통해 숲과 물이 있는 쾌

광주시민이어! 자긍심을 갖자

이러한 문화적으로 다채로운 사상과 역사는 한국의 정신적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 여러 사상이 호남에서 싹트고 자라는 배경이 되었다. 즉, 호남은 보다 창조적이고 숭신적인 점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6~7년 전부터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과 광주의 특성을 살려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 육성 정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제 꿈과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로 상징되는 가치 높은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민·관의 끝없는 노력을 통해 자발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면서, 1등 광주 건설을 완성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질 때이다.

이는 10월 30일에는 '제4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열린다. 필자는 이번 시민의 날을 맞이하면서 빛고를 광주의 주인인 시민 모두가 진정 기쁜 마음으로 자축하고 첨단산업 문화수도로 우뚝 서 있다는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적한 생활공간 조성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서남권 중추도시로서의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근대 선교유적을 활용한 전통문화유산 복원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호평 받는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문화에 숲축제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콘텐트를 개발하고 문화수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제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로 상징되는 가치 높은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민·관의 끝없는 노력을 통해 자발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면서, 1등 광주 건설을 완성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질 때이다.

이는 10월 30일에는 '제4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열린다. 필자는 이번 시민의 날을 맞이하면서 빛고를 광주의 주인인 시민 모두가 진정 기쁜 마음으로 자축하고 첨단산업 문화수도로 우뚝 서 있다는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주민센터,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 부여해야

얼마 전 전세 계약을 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기소를 가보라고 알려주 등기소를 찾아갔다. 등기소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일 이후면 입주일자 이전에

도 확정일자를 실제로 해주었다. 생업이 바쁜 시민들은 가까운 주민센터가 아닌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다. 주민센터도 주택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이사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浩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書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체육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사회2부 222-4267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